

2019년 7월 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 짙은 하루

미국 주식시장, 3일 조기 종료, 4일 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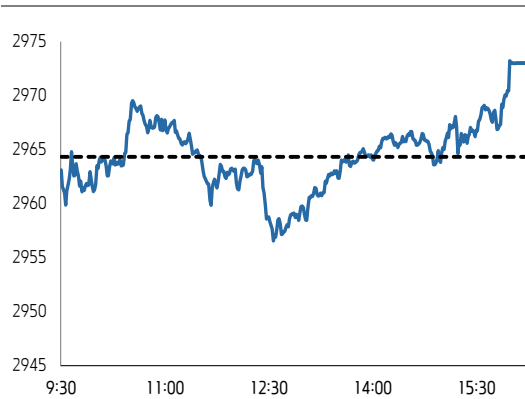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 차기 ECB 총재 임명, 금리인하 이슈

미 증시는 하락 출발 했으나 차기 ECB 총재로 라가르드 IMF 총재안이 발표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음. 그러나 연준위원들의 금리동결 가능성을 언급하자 재차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다만, 오후 들어 개별종목들의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마감(다우 +0.26%, 나스닥 +0.22%, S&P500 +0.29%, 러셀 2000 -0.58%)

차기 EU 집행부에 대해 윤각이 드러나고 있음. 오늘 EU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장으로 독일 국방장관인 폰테라이엔이 추천되었으며, 시장에서 주목한 ECB 총재로는 라가르드 IMF 총재를 추천. 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월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인준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11월 1일 임기 시작). 시장에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차기 ECB 총재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특히 라가르드는 최근 발언을 통해 ①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경고 ②관세 등 무역장벽 완화 ③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 등을 언급해 왔음. 시장은 이를 토대로 라가르드 총재가 드라기 ECB 총재에 이어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이끌 것으로 전망. 다만 일부에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해 확실한 견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불확실성이 평가도 있음

한편, 장 중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라며 금리인하에 대해 회의적인 언급을 함. 그러나 “경기전망이 악화되면 금리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 결국 경제지표에 주목하겠다는 해석인데, 이는 최근 발언이 있었던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등의 발언과 동일. 이는 7월 금리인하 100%를 이야기하는 시장과의 간극이 큰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연준의 금리인하 이슈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고서(5일), 소매판매, 산업생산(16일), 2분기 GDP 성장률(26일) 등 주요 경제지표 결과가 더욱 중요해짐. 한편, 다음주 10일~11일 있을 파월 연준의장의 통화정책 등에 대한 의회 청문회 일정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요인이라는 점을 감안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22.02	-0.36	홍콩恒生	28,875.56	+1.17
KOSDAQ	696.25	+0.04	영국	7,559.19	+0.82
DOW	26,786.68	+0.26	독일	12,526.72	+0.04
NASDAQ	8,109.09	+0.22	프랑스	5,576.82	+0.16
S&P 500	2,973.01	+0.29	스페인	9,281.50	+0.18
상하이종합	3,043.94	-0.03	그리스	874.47	+0.01
일본	21,754.27	+0.11	이탈리아	21,392.87	+0.6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업종 부진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그린브리어(-6.94%)는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코노코필립스(-3.45%), EOG리소스(-5.94%), 엑손모빌(-1.10%)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급락한 여파로 하락 했다. 마이크론(-1.27%), 브로드컴(-1.67%)은 물론 AMAT(-2.23%), 램리서치(-2.17%) 등 반도체 관련주는 차익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심혈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인 어마린(+16.27%)은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자 급등 했다. 머크(+0.90%), 에브비(+1.13%), 일라이 릴리(+1.30%)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인 O'Reilly Automotive(+2.34%)는 판매량의 증가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리얼티인컴(+1.57%) 등 리츠금융회사들과 넥스트라에너지(+1.78%) 등 유틸리티 업종은 국제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했다. 시간 외로 테슬라(-1.15%)가 분기 판매량 급증으로 시간외로 7% 넘게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53%	대형 가치주 ETF(IVE)	+0.08%
에너지섹터 ETF(OIH)	-3.22%	중형 가치주 ETF(IWS)	-0.12%
소매업체 ETF(XRT)	-0.78%	소형 가치주 ETF(IWN)	-0.72%
금융섹터 ETF(XLF)	-0.25%	대형 성장주 ETF(VUG)	+0.42%
기술섹터 ETF(XLK)	+0.26%	중형 성장주 ETF(IWP)	+0.1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8%	소형 성장주 ETF(IWO)	-0.56%
인터넷업체 ETF(FDN)	+0.58%	배당주 ETF(DVY)	+0.08%
리츠업체 ETF(XLRE)	+1.8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2%
주택건설업체 ETF(XHB)	0.0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8%
바이오섹터 ETF(IBB)	-0.07%	미국 국채 ETF(IEF)	+0.36%
헬스케어 ETF(XLV)	+0.54%	하이일드 ETF(JNK)	+0.19%
곡물 ETF(DBA)	-0.48%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1.17%	Long/short ETF(BTAL)	+1.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3.54	-1.74%	+0.26%	+4.15%
소재	369.15	-0.14%	+1.57%	+5.48%
산업재	652.38	-0.13%	+1.38%	+4.63%
경기소비재	956.88	+0.32%	+2.47%	+7.38%
필수소비재	605.19	+0.85%	+0.07%	+3.99%
헬스케어	1,083.21	+0.43%	+0.73%	+5.46%
금융	463.29	-0.18%	+3.14%	+4.03%
IT	1,396.41	+0.29%	+3.28%	+9.36%
커뮤니케이션	167.22	+1.06%	+2.53%	+7.33%
유틸리티	305.84	+1.24%	-0.61%	+2.94%
부동산	231.39	+1.82%	+0.56%	+2.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관망세 짙은 하루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5%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35 계약) 전환에 힘입어 0.30pt 상승한 277.3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6.5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관망세가 짙은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종목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유가가 OPEC 정례회의 이후 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미-EU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가 부각되자 4% 넘게 급락한 점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8% 하락한 점도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미-중 무역협상 재개 등으로 재고 감소 기대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재고와 약한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를 감안 관련 우려 해소 기대가 높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한편, 테슬라가 2분기 판매량에 대해 예상(91,000 대) 보다 증가한 95,200 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하자 시간외로 7%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종목들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요인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변화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장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영국 건설경기 급감

6 월 영국의 건설부문 PMI 는 전월(48.6)이나 예상치(49.4)를 크게 하회한 43.1 로 발표되었다. 이는 2009 년 4 월 이후 둔화폭이 가장 컸다. 특히 브렉시트 이슈가 제기된 이후 전반적인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연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된 결과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수요 둔화 우려로 급락

국제유가는 OPEC 이 정례회의를 통해 감산기간 연장을 합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급락 했다. 시장 예상보다 긴 9 개월의 기간 연장이 나왔으나, 수요 부진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이 대 EU 관세 부과하는 등 무역분쟁 격화 우려가 높아진 점이 부담이었다. 여기에 사우디가 아시아 시장에 대해 판매가격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혼조 양상을 보였다. 엔화는 경기 둔화 우려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의 건설 PMI 가 크게 둔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호주달러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속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미국과 EU 가 무역분쟁을 이어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하락 했다. 더불어 금융시장 휴장을 앞두고 있어 위험회피 현상이 부각된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인하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으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단기물의 낙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제조업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수요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64% 상승 했으나, 철근은 0.54%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25	-4.81	-2.73	Dollar Index	56.25	-4.81	-2.73
브렌트유	62.40	-4.09	-2.92	EUR/USD	62.40	-4.09	-2.92
금	1,408.00	+1.35	-0.75	USD/JPY	1,408.00	+1.35	-0.75
은	15,238	+0.30	-0.94	GBP/USD	15,238	+0.30	-0.94
알루미늄	1,782.00	-0.67	-1.76	USD/CHF	1,782.00	-0.67	-1.76
전기동	5,887.00	-1.13	-2.57	AUD/USD	5,887.00	-1.13	-2.57
아연	2,479.00	+0.69	-2.52	USD/CAD	2,479.00	+0.69	-2.52
옥수수	426.00	+0.83	-6.89	USD/BRL	426.00	+0.83	-6.89
밀	503.25	-1.66	-6.81	USD/CNH	503.25	-1.66	-6.81
대두	898.75	-1.07	-3.00	USD/KRW	898.75	-1.07	-3.00
커피	109.65	-1.53	+2.05	USD/KRW NDF 1M	109.65	-1.53	+2.0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974	-5.00	-1.10	스페인	0.289	-4.50	-8.80
한국	1.582	-3.00	-1.50	포르투갈	0.360	-4.90	-11.70
일본	-0.146	0.00	+0.90	그리스	2.159	-12.00	-30.10
독일	-0.367	-1.00	-3.60	이탈리아	1.837	-12.80	-32.10